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 영향요인 비교분석

이형하^o

^o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hhlee62@kwu.ac.kr^o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Self-reliance Ethos between Self-support work and Self-support community Participants

Hyoung-Ha Lee^o

^o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립의지, 자아존중감, 사회자본 정도와 자활사업 참여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요인과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령대(B=.228), 건강상태(B=.097), 자아존중감(B=.233), 사회자본(B=.184)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자립의지에는 유의미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키워드: 자활사업(self-sufficiency program), 자립의지(self-reliance ethos), 사회자본(social capital), 자아존중감(self-esteem)

1. 서 론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workfare program)인 자활사업은 계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대표적인 비판의 중심에는 낮은 탈수급률로 인한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의 문제였다. 자활사업의 성공은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탈수급과 같이 국가의 생계비 지원 없이 경제적 자활을 이루거나,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취업하거나 창업을 통해 스스로의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사업의 목표의 불일치, 참여자의 낮은 근로능력, 자활사업 추진 인력의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 등은 자활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노대명, 2004; 이미라, 2011). 또한 자활사업 성과 미흡의 원인 진단과 관련하여 자학력, 고연령, 건강 미흡, 기술 능력의 부족 등과 같은 인적자본의 결여라는 특성과 낮은 자아존중감, 알코올 남용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 등도 자주 지적되고 있다(도유희, 이상록,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로 자활성과를 논의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에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 등의 정서적

자활이나 조직헌신과 사회적응력 향상 등의 사회적 자활을 함께 강조하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정원오, 김진구, 2005; 이형하, 조원탁, 2004; 엄태영, 임진섭, 2014).

그러나 자활사업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자 입장에서는 탈수급으로 발생하는 제도적 지원중단이라는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낮은 제도적 유인구조 속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자활성과는 참여자들의 '자립의지'라고 할 수 있다. 자립의지와 관련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도 주요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갖고 있는 빈곤이라는 특성은 현실적으로 취약한 사회자본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사회자본도 주요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에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사회자본, 자립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자활사업 참여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 사회자본, 자립의지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사회자본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립의지

수급자의 자립의지는 자활의지와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자활의지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활의지는 “소득의 부재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보호에 인주하지 않고 근로를 통해 스스로 자립자활에 이르려는 동기, 열망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능력”으로 정의하며(김승의, 2007), 자활의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신감통제력문제해결의지를 표현하는 개념”이며(박영란, 강철희, 1999), 근로의욕은 “경제적 자립달성을 위한 과정적 요소로서의 자활의지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한다(노희경, 2004). 기존연구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를 ‘탈수급에 대한 바람’으로 비교적 일반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데 반해, 최종혁, 김수완(2012)은 자립의지를 ‘각 개인의 일상적인 바람이 아닌, 일생에 걸쳐 환경에 의해 체득되는 태도, 성향’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2. 자이존증감

자이존증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실하는 정도로서, 자신의 태도나 의도, 그리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Trat, 1985; 엄태영 외, 2008 재인용). 그리고 자이존증감은 주위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특히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자이존증감 향상의 요인이 된다. 특히 자활사업 진행과정에서 참여자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믿음은 자활사업 내에서 가장 밀접한 자활사업 실무자와 동료들과의 관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엄태영 외, 2008). 과거 자활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금전적 인센티브 요인을 중시하였으나, 단순한 인센티브가 가진 제한적인 효과가 확인되면서 최근 자존감, 자신감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안선연 외, 2011). 서구국가 가운데 미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교육수준, 근로경험 등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자활을 분석하고 있지만, 근래에는 정신건강이 자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Dooley & Prause, 2002; Schmidt et al., 2002; 이서원 외, 2011 재인용).

3. 사회자본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하고, 어떤 행위자가 특정한 집단, 혹은 개인과 관계를 맺음에 따라 동원할 수 있게 되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 연결망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에 따라 사회자본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은 그것이 없으면 이루지 못할 어떤 목적의 달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자본과 비슷하지만, 동시에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 속에 내재 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본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정의하고 있다(성낙현, 2014).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연대(tie), 규범(norm), 그리고 신뢰(trust)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스스로 강화되고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태정(2007)은 시장에 진입하여 자활에 성공하여야 하는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의 크기와 질적 측면이고, 또한 관계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면 정보의 공유 및 상호 지지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망이 형성되면 참여자들은 자활성공을 위해서는 서로 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이기심을 차단하여 집단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규범적 요소가 적용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이루어진 2012년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참여자를 직접 방문하는 ‘직접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기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층이다. 최종 대상자는 지역자활센터 51개소에 소속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자활공동체(기업) 참여자였다. 최종적으로 자활근로사업단 1,301명, 자활공동체(기업) 128명이 조사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주요변수의 측정

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립의지이다. 자립의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노동에 대한 동기’로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자립의지의 신뢰도는 .840으로 나타났다.

2-2. 독립변수

본 연구의 주요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대, 학력, 건강 상태, 만성질환 여부를 측정하였고, 심리적 요인으로 자이존증감 4점 리커트 척도 10문항, 사회관계성 요인으로 사회자본 5점 리커트 척도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자이존증감의 신뢰도는 .574, 사회자본의 신뢰도는 .886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및 주요 변수의 특성

참여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첫째, 자활사업에는 여성(자활근로사업 75.4%, 자활공동체 65.2%)이 남성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연령대는 40-50대(자활근로사업 71.8%, 자활공동체 81.0%)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활근로사업 44.5%, 자활공동체 52.6%) 비중이 가장 높았다. 혼인상태는 이혼, 사별, 별거(자활근로사업 55.6%, 자활공동체 48.7%)가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은 없음(자활근로사업 64.9%, 자활공동체 80.6%)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자활근로사업 40.6%, 자활공동체 6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Summary of Resondent Characteristics

변수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305	24.6	40	34.8
	여자	934	75.4	75	65.2
연령대	30대미만	48	4.0	2	1.8
	30대이상	126	10.6	6	5.4
	40대이상	426	35.8	48	43.2
	50대이상	429	36.0	42	37.8
	60대이상	162	13.6	13	11.7
학력	무학,초등학교	273	22.4	18	15.5
	중학교	244	20.0	19	16.4
	고등학교	542	44.5	61	52.6
	전문대학이상	158	12.9	18	15.5
혼인 상태	미혼	133	11.0	8	6.8
	배우자있음	391	32.5	51	43.6
	이혼,사별, 별거	669	55.6	57	48.7
	기타	11	0.9	1	0.9
만성질환 여부	있음	403	35.1	21	19.4
	없음	744	64.9	87	80.6
건강 상태	일상생활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	27	2.1	1	0.8
	일상생활을 돌볼 수 있으나 직업을 가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92	7.2	3	2.4
	직업을 가질 수는 있으나 힘든 일이나 많은 일은 못한다	637	50.0	42	33.9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517	40.6	78	62.9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2-1. 주요 변수의 평균분석

자이존중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2.328(표준편차 .402)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자이존중감 2.406(표준편차 .404)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회자본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2.980(표준편차 .844)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사회자본 3.356(표준편차 .815)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립의지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4.150(표준편차 .602)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자립의지 4.314(표준편차 .521)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평균 분석

Table 2. The average analysis of the main variables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자이존 중감	자활 근로	1192	2,3280	.40220	.01165
	자활 공동체	108	2,4046	.40427	.03890
사회자 본	자활 근로	1221	2,9800	.84467	.02417
	자활 공동체	120	3,3569	.81508	.07441
자립의 지	자활 근로	1192	4,1509	.60272	.01746
	자활 공동체	118	4,3143	.52132	.04799

2-2. 주요 변수의 집단간 차이 분석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자이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t=-1.895, p>0.05$)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사회자본($t=-4.679, p<.001$)과 자립의지($t=-2.841, p<.01$)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사회자본과 자립의지가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사회자본과 자립의지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의 집단간 차이 분석

Table 3. Between-group differences in the analysis of the main variables

	F	t	자유도	유의 확률
자이존중감	.052	-1.895	1298	.058
사회자본	1,301	-4.679	1339	.000
자립의지	2,390	-2.841	1308	.005

2-3. 자립의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령대($B=.228$), 건강상태($B=.097$), 자이존중감($B=.233$), 사회자본($B=.184$)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자립의지에는 유의미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자립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the independent commitment

모형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B	t	B	t
성별	.022	.711	-.032	-.277
연령대	.228	6.567***	.054	.436
학력수준	-.008	-.231	-.081	-.600
배우자 유무	-.048	-1.561	.060	.533
만성질환 여부	.030	.919	-.006	-.056
건강상태	.097	3.063**	.164	1.460
자이존중감	.233	7.554***	.174	1.614
사회자본	.184	5.787***	.218	1.841
R2	.165		.115	
F	22,256***		1,284	

V. 결 론

본 연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 근로자의 자립의지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2012년 자활사업 참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사회자본($t=-4.679$, $p<.001$)과 자립의지($t=-2.841$, $p<.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이존중감($t=-1.895$, $p>.05$)은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령대($B=.228$), 건강상태($B=.097$), 자이존중감($B=.233$), 사회자본($B=.184$)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자립의지에는 유의미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회귀분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대한 자립의지 제고를 위한 자활정책, 교육시스템,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적합직종 개발, 건강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자이존중감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사회자본의 확대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단 운영방식과는 달리 소득증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참여자의 직업경력과 매칭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는 지속가능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mr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Social Capital on Their Quality of Lif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2, No. 4, pp. 413-443. Winter. 2011.
- [2] jhchoi, and swkim, "A Qualitative Study on Self-reliance Ethos of the Welfare-dependent Poor,"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pl. 14, No. 4, Nov. 2012.
- [3] R. D.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ject, Vol. 13, pp. 35-42, 1993.
- [4] ihsong, jopark and ljkim,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between the Aged and Non-Aged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3, No. 1, pp. 183-197, 2013.
- [5] hhlee, and wtcho, "Factors Influencing Self-Sufficiency Effect of Workfare in the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Social Welfare Policy, Vol. 20, pp. 217-244, Dec. 2004.